

건설공사 원가에서 노무비 비중 고작 5%

기사입력 2012-11-14 18:17:11 |

폰트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반값 소개소 사업 제도 개편 필요

완성공사의 원가구성요소 가운데 노무비 비중이 5%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로 취업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일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최로 열린 2012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공사 원가구성요소에서 노무비 비중은 2010년 5.2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비중은 2001년 9.76%였지만 점차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5.25%까지 떨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원도급보다 더 낮은 낙찰률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하도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원가구성항목은 노무비가 유일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근무여건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저낙찰제공사의 2010년 원도급 낙찰률은 71.1%였지만 하도급 낙찰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51.2%에 불과했다.

특히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13일에 불과해 전체 근로자 평균인 259일보다 낮았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기간도 16~20일에 그치는 비율이 52%로 상당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 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근로자들 상당수가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어 숙련도가 낮은 건설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적었다.

박 연구위원이 분석한 건설현장 취업경로를 보면 아는 사람을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비중이 75.5%나 됐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비율은 9.9%에 그쳤다. 반면 건설업 종사 기간이 5년 이하인 건설근로자의 17%는 유료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고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저숙련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 취약층이 자기돈을 내면서 일을 구하는 상황”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하고 있는 반값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반값 소개소 사업은 임금 대납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무료직업소개소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